

예 배 순 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찬송가 589)

-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흔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 2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 3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 4 거둬 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후렴)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기 도

말 은 이(가족 중에서)

성 경 말 씀

시편 128편 1-6절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설 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찬 송

예수 사랑하심은(563장)

- 1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 4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 기 도 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석이 되면 우리는 음식을 준비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음식만큼 중요한 것은 가족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무심코 건넨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따뜻한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 갈 수 있을까요?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말을 들어 주고, 잘못했다면 사과하며, 수고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대하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옳다는 마음에 가족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화가 날 때 말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은 순종이 가정의 대화를 바꾸어 줍니다.

2.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돌보는 가정입니다(2-4절).

시편은 수고한 것을 먹는 복을 말하며,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먹을 양식과 가족이 함께하는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에 돌봄과 시간이 필요하듯 가족에게도 관심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작은 성장을 기뻐하고 배우자의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그동안 애썼어요”, “함께해서 감사해요”라는 말로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때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기도하며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릴 때,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3. 이웃의 평안을 함께 구하는 가정입니다(5-6절).

시편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가정의 복을 넘어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명절에 혼자 지내거나 외로워하는 이웃을 살펴봅시다. 안부 전화 한 통과 음식 나눔으로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와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눌 음식을 준비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을 돌보며, 이웃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번 추석,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